

고국에... 너라도 가져라



중국에서 체류중인 구례 출신 북한국적 화가 이건의씨의 전시회가 그가 고향을 떠난지 70년 만에 고향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북한 국적’ 이건의의 화백 70년만에 고향서 전시회 8월 17일까지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너라도 가져라’. 전시회 타이틀이다. 아마도 타이틀 중간에는 ‘고향에’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을 것이다. 구례 출신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국적 화가 이건의(75) 선생의 전시가 고향에서 열린다. 그가 고향을 떠난 지 꼭 70년 만이다. 국적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고국 땅을 자유롭게 밟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혼을 불어 넣은 작품들이라도 고향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 선생에게 고향은 평생 그리움의 대상이자 예술혼을 피울 수 있는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 선생은 자신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머물면서 언론을 통해서나마 고국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8월17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이건의의 화백 초대전을 연다.

이 선생은 1939년 구례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중국 흑룡강성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 선생의 가족은 한국전쟁 직후 평안남도 남포시로 건너갔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다. 당시 전쟁복구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선생 가족은 그렇게 북한에서 2년을 생활하면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지만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다시 흑룡강성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58년째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중국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 화백의 작은 바람은 그가 중국에서 화가의 길을 걷는데 큰 걸림돌이 됐다. 중국 미술대학인 중등전문학교와 대학원 과

구례 출신, 다섯살 때 중국행
2년간 북한 거주로 국적 획득
고향 돌아올 희망에 귀화 않고
58년째 흑룡강성서 작품 활동



‘유 1 幽之’

정원 미술간부 양성반을 졸업한 그는 로신미술학원 중국화 진수반을 수료했다. 이후 중국 동반문화연구회 전시회에서 입선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단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적이 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에 출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작품을 인정받아 중국 미술대학교단에 있으며 중국 현대미술대사전, 중국 당대 미술관명인록, 중국 역사문화평가 대사전 등에 등재됐다. 현재는 중국 소수민족 미술속진회 이사, 중국국 화가협회 이사, 가목사대학 미술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수묵화 78점과 수채화 10점 등 모두 8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의 평생 화업의 결과이자 고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은 중국의 전통화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웅장함과 준귀함이 서사시처럼 느껴진다. 자연에 순응하며 함께하는 노자의 품격과 군자의 풍모를 지키는 높은 정신세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는 조선의 선비정신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실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세세한 붓의 놀림으로 표현된 거대한 자연에서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그의 실경은 백미다. 한지 위에 녹아내리듯 표현된 눈은 어쩌면 어렵스럽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본 눈과 닮았을 것이다.

한편 이건의 선생은 지난 2012년 처음 고국을 방문했다. 결혼을 앞둔 중국 국적 딸과 한국 국적 사위의 초대로 이뤄졌다. 그는 구례군과 전남도를 방문 작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문의 062-613-53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그린발레단, 26일 오후 5시 광산문예회관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광주여대 무용학과 교수)은 2011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광산문예회관과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쥐팔쥐’, ‘백설공주’ 등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창작 발레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그린발레단만의 트레이드마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광산어린이 발레교실’도 운영중이다.

재미있고 알기 쉬운 해설이 곁들여지는 공연은 관객들이 발레 공연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린발레단이 해설이 있는 발레 ‘한 여름밤의 꿈’을 공연한다. 26일 오후 5시 광산문예회관.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규모가 작은 소품이기는하지만 예술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발레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발푸르기의 밤’ 중 ‘3명의 요정 신’, ‘에스메랄다’ 중 그랑 파드 뒤, ‘빈사의 백조’, ‘샘물’, ‘아랑훼즈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돈키호테’ 중 결혼식 장면,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발레 ‘한여름밤의 꿈’ 중 한 부분 등이다.

조기영 그린발레단 부예술감독이 해설을 맡아 무용수 몸짓의 의미, 작품 속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 제작 에피소드 등을 들려준다.

박경숙 그린발레단장은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백조의 호수’ 등에 비해 자주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성면에서는 뛰어난 소품들”이라며 “희극과 비극 등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960-8989, 062-960-37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디어아트’ 공금증 풀어드립니다

광주문화재단, 오늘 정선휘씨 작업실 공개·내일 집담회

‘미디어아트, 보고 듣고 이야기하다.’ 미디어아트 작가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작업을 할까. 앞으로 미디어아트는 어떻게 변화할까.

광주문화재단은 24일 오후 7시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입주작가인 정선휘씨의 작업실에서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한다.

이날 행사에서 현재 파주와 전북 삼례에 속촌에서 전시회를 진행 중인 정씨의 작품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 모두 여섯 번에 걸쳐 오픈 스튜디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5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미디어큐브 338에서는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미디어아트 작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집담회가 열린다. ‘광주미디어아트, 어디로 가야 하나’를



정선휘씨 작업실.

테마로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이 진행하는 이날 집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작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호훈, 박한별, 정선휘, 이조흠, 김유석, 성유진, 송승민, 강민형, 김은정, 오용석, 정유승씨 등 작가와 기획자들이 참가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1. /김경민기자 kki@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소파 식탁 보신판매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